

# 화순, 지역 명문고 육성정책 '눈에 띄네'

### 예산 65억 투자 2018학년 'SKY대' 34명 합격 전년 대비 25.9% 증가... 교육기관과 협력 결실

화순군이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역 명문고 육성 정책이 대학 합격률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2018학년도 관내 고등학생의 입시 결과를 보면 서울대 5명, 연세대 8명, 고려대 21명 등 이른바 'SKY대'에 34명이 합격, 전년 대비 합격률이 25.9%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196명, 전남대 68명, 조선대 114명 등 지역대학을 비롯해 4년제 대학에 모두 444명이 합격하고, 의한외대 2명, 교육·사범대학 18명이 합격(복수 합격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체 진학률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 대비

합격률이 6.8%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8학년도 학교별대입 합격자 현황을 보면 화순고등학교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고, 연세대 2명, 경희대 1명, 성균관대 1명, 경인교대 1명 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29명이 합격하고, 전남대 32명, 조선대 89명, 광주교대 2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능주고등학교는 서울대 4명, 연세대 6명, 고려대 21명을 비롯한 상위 10위권 대학 합격생 86명 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165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또한, 의·치·한의예과 2명, 특수대학 4명, 교육대학 6명, 사범대학 10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 명문고의 위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까지 화순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큰 몫을 했다.

화순군은 일찍이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지역 인재 유출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2016년 6월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17년 61억원, 2018년 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교육 전문가 및 학교현장,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8월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본 계획에 따라 올해 5개 분야 49개 단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역 인재 유출을 예방과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 교육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왔다.

특히 학교별 역량에 따라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 진학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이번 대학 진학성과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 진학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학교별 역량에 맞는 진로 진학지도 및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교육 예산을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올해 입시에서 화순 출신의 학생들이 서울 소재 등 주요 대학에 많이 합격한 데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학교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지자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명품 교육도시 화순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무인도에 핀 산벚꽃  
매서던 주말 한파가 물러난 9일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 강진(灣) 무인도 중 하나인 죽도(竹島)가 피기 시작한 산벚꽃으로 단장해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강진군 제공

### 담양 'K-Festival 2018' 대나무축제 집중 홍보

## 해남 친환경 쌀 미국 수출길 올랐다

담양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여의도 둔지에서 열린 'K-Festival 2018, 파이팅코리아 내 고향 페스티벌'에 참가해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 및 담양의 주요 관광지, 문화콘텐츠 등을 소개하는 담양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축제전문 대표 박람회로 '축제 홍보'를 통한 새로운 지역 관광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축제 관계자들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관광정보 교류의 귀한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의도 봄꽃 축제기간에 개최된 'K-Festival 2018' 행사장에는 봄꽃 축제를 즐기려는 많은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를 비롯해 죽녹원과 관광제일, 메타세쿼이아랜드 등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등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18담양지방천년의 해', '2018담양방문의 해'를 부각해 봄 대표 축제인 '담양대나무축제'와 '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강종민 기자 jilbest1@

### '가바쌀' 1차 13t 첫 선적 美 16개 마켓서 판매 예정

해남 친환경쌀이 미국행 첫 수출길에 올랐다.

해남군과 땅끝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식)은 9일 땅끝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RPC에서 수출쌀 선적행사를 갖고 1차 13t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번에 수출된 쌀은 해남군과 농촌진흥청이 해남 현산면과 계곡면 일대에 조성한 68.2ha의 수출쌀전면재배단지에서 생산한 '친환경 가바쌀' 품종이다.

일반쌀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가격에 수출, 미국내 16개 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고급쌀 소비층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친환경 가바쌀의 수출은 이번 수출량을 포함, 6월경 말레이시아, 8월경에 미국에 2차분을 수출하는 등 올해 총 100t을 수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남쌀의 해외수출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쌀



해남군과 땅끝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9일 땅끝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RPC에서 수출쌀 선적행사를 갖고 1차 13t을 미국에 수출했다.

수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수출용 쌀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 매뉴얼을 적용해 재배, 외국 소비층 기호에 맞춰 기능성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 미국, 말레이시아 쌀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국, 베트남까지 수출국을 확대해 연간 500t 이상의 쌀을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 중국유기인증 획득한 기능성 쌀로

만든 유기농이유식,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도 개발·수출할 계획이다.

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출로 고품질 해남쌀의 명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쌀을 포함한 해남 농특산물의 수출이 대폭 확대돼 농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해남 농특산물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 목포역사 총망라 20년 만에 공개... '목포시사' 발간

#### 내일 기념식 개최

목포시가 목포 역사를 재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물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오거리문화센터에서 '목포시사' 발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목포시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해 목포의 발전 과정, 지역민의 삶과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목포시사' 발간을 추진해왔다. 20년 만에 새로 쓴 '목포시사'는 '항도

목포', '예향 목포', '일등 목포', '타전 목포', '기록 목포' 등 총 5권으로 구성됐다.

'목포시사'는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이 아닌 목포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시 쓰거나 주제를 별도로 설정해 구성했다. '1980년대 목포의 민주화운동(1권)처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가 직접 집필해 살아 숨쉬는 역사를 서술하기도 했다. 연혁, 조직 구성, 현황 위주로 서술했던 기존 내용을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 경향을 새롭게 했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전남도민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